나주시, E산업융복합단지 6곳 확정… 에너지 수도 박차

〈에너지〉

산업부, 빛가람혁신도시 거점 포함
첨단기술 창출, 경제 활성화 도모
코어, 서비스실증, 재생·실증형 지구
에너지특화기업에 개발 등 혜택

빛가람 혁신도시 /연합뉴스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확정으로 나주시가 추진 중인 에너지 수도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게 됐다.

나주시는 전날 산업통상자원부가 제18차 에너지위원회를 열고 빛가람혁신도시 거점을 포함해 나주지역 6곳을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조성 구역으로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이 단지는 첨단기술 창출과 국가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해 조성된다.

대규모 에너지 발전시설과 에너지기업, 기관·연구소 등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에너지 연관 산업의 집적과 융·복합을 촉진하기 위해 산자부가 지정한다.

광주·전남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는 에너지공기업형 코어지구와 서비스 실증형 연계 1지구, 재생·실증형 연계 2지구 등 총 3개 지구로 나눠 추진된다.

단지의 거점이 될 '코어지구'는 빛가람혁신도시 클러스터와 나주 혁신산단, 광주 도시첨단산단, 평동산단 등 총 10.73㎢가 포함됐으며, 스마트그리드, 에너지효율 향상 분야를 중점 산업으로 육성한다.

이중 나주시는 혁신도시 클러스터, 혁신·일반·신도산단, 나주 에너지국가산단, 한전공대 연구·클러스터 등 6곳, 6.15㎢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에 포함됐다.

나주시는 이번 단지 지정으로 기술혁신 역량을 갖춘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우선구매 요청, 지방세 감면 등의 각종 혜택을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에너지중점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문 연구기관과 인력 양성, 인증·평가·실증 등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예산도 국가로부터 지원받는다.

나주시는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되면 현재 조성 중인 나주 에너지국가산단과 한전공대 연구소·클러스터의 향후 분양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전을 비롯한 공기업 발주 물량에 대한 우선구매 요청 등을 통해서는 기업 투자유치 촉진과 입주기업의 성장을 견인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획기적인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에너지산업융복합단지 지정은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비전 실현을 위해 에너지밸리 조성 활성화와 에너지신산업 투자·육성, 에너지분야 국가공모사업 추진 등에 힘써 온 결과 거둔 뜻 깊은 성과"라며 "혁신도시 시즌2의 성공과 에너지수도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차정준 기자 cc6311@metroseoul.co.kr

겨울 준비 한창

입동(立冬)을 하루 앞둔 7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청 안전건설과 자재창고에서 직원들이 겨울에 사용할 제설함을 세척하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시, GIS플랫폼 연계 신속대응 시스템 만든다

현재 개별관리로 종합대처 어려워
스마트도시담당실과 협업, 예산 절감
내달 1단계 시스템 구축 완료 예정

인천시는 전국 최초로 분야별로 운영중인 시설관련 시스템을 현재 시에 구축된 GIS 플랫폼과 연계해 안전점검 및 시설물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 통합관리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교량·터널·지하도상가, 위험시설, 급경사지 등 시설물을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개별적으로 관리·운영되고 있어 안전점검 및 안전사고 발생 등에 종합적인 대처가 어려움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시스템 구축은 현재 시에 구축된 GIS 플랫폼을 활용해 스마트도시담당관실과 협업사업으로 추진함에 따라 별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된다.

인천시는 중앙부처와 시스템 연계 등 업무협의를 거쳐 올해 12월 1단계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예정이며, 1단계 통합관리대상 시스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4885개소), 건축행정시스템(23만4219동), 국가안전대진단시스템(1980개소)을 GIS 플랫폼에 연계해 관리·운영하게 된다.

2단계 시스템 구축은 1단계 시스템 시범운영 등을 거쳐 3차원 시설물관리체계(GIS 및 빅데이터를 활용한 입체적(3D) 재난안전 관리시스템)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재범 안전정책과장은 "스마트도시담당관실과 함께 현재 운영중인 GIS 플랫폼을 활용한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스마트한 재난안전 행정체계 마련 및 각종 재난 발생시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최영주 기자 choiyj@

'최장 50년 임대' IPA, ODCY 입주기업 모집

2개 필지 2.4만평 우선 공급 추진

인천항만공사는 8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인천 남항 아암물류2단지 내 Off-Dock Container Yard(이하 ODCY) 부지 입주기업 모집 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ODCY 부지는 IPA가 연수구 송도동 297번지 일원에 조성중인 아암물류2단지 1-1단계 부지(67.3만㎡) 중 내년 6월 개장을 앞둔 신국제여객부두 컨테이너 물량처리를 위해 우선 공급하는 2개 부지로 각 부지당 약 4만㎡, 총 8만㎡(2만4000평) 규모이다.

모집대상은 인천항 신국제여객부두 ODCY 운영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으로,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해 최종 2개 업체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며 임대료는 ㎡당 월 1945원, 임대기간은 최장 50년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입주조건, 신청자격, 평가방법 및 일정 등 공고내용을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여 12월 18일 사업신청서류를 항만공사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인천=백용찬 기자 wsac114@

여수죽림부영아파트 적정분양가 요구에 답변하는 권오봉 여수시장(오른쪽에서 세번째)

여수 부영아파트 분양가 청원에 "고민해볼 것"

권오봉 여수시장, 청원자들과 만남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 부영아파트의 조기 분양 전환에 따른 분양 전환 가격이 높다는 입주민들의 반발이 지속하자 여수시장이 직접 해결에 나섰다.

7일 여수시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시청 홈페이지 시민 청원방에 '죽림 부영아파트의 터무니없이 높은 분양가 산정'에 대한 청원이 올라왔다. 이 청원은 지난달 23일 313명의 지지를 얻어 시장이 답변할 수 있는 청원 요건을 갖췄다.

청원인은 "죽림 부영아파트가 임대에서 분양으로 전환하면서 적정 분양가가 책정돼 임차인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청원 글을 게시했다. 청원인은 "부영은 저렴하게 공급받은 공공택지에 아파트를 지어 서민들로부터 임대수익은 챙기면서 적정한 분양가격 산정은 외면하고 최근 지어진 고급아파트 수준에 맞춰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오봉 시장은 6일 오후 시장실에서 청원자들과 만나 "우리 시에서도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분양 전환가격 조정의 필요성을 통감하고 주민들의 편에서 고민하겠다" 고 말했다. /전남=차정준 기자

주민이 직접 공약실천 평가 광주 광산구 '시민배심원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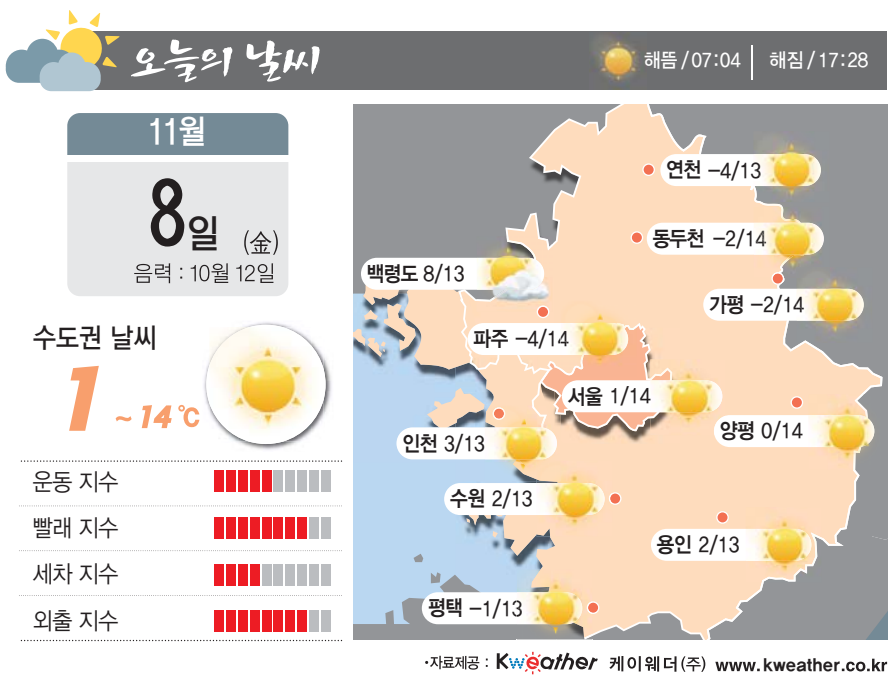
광주 광산구가 민선 7기 공약 이행 현황을 주민 눈높이로 평가하고자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한다.

7일 광산구에 따르면 투표권을 지닌 주민을 대상으로 공약 실천을 평가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배심원단을 꾸린다.

시민배심원단은 성별과 나이, 지역별 인구를 안배해 전화 면접 등으로 무작위 선발한다.

배심원단 35명과 예비배심원단 5명을 최종 선발하면 분과를 구성해 민선 7기 공약사업을 파악하고 이행 상황과 개선점 등을 토의한다.

국회 본회의 방식을 차용한 전체회의를 소집해 분과별 심의 결과와 권고안, 최종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김삼호 구청장은 시민배심원단 권고안 수용 여부를 판단하고 나서 결과를 구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한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약 이행의 직접 수혜자는 공직자가 아닌 주민"이라며 "주민 눈높이로 민선 7기 성적을 매겨 성숙한 민주주의를 구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남=차정준 기자